sb성북

성북문화원
Seongbuk Cultural Center

성북구의 역사문화자원 이야기

마왕성북

글/그림: 김정현



성북구의 역사문화자원 이야기

마왕성북

발행일 | 2024. 4. 30.
발행인 | 성북구청장
발행처 | 성북구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글·그림 | 김정현
디자인 | 김정현
기획·편집 | 성북구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169)
자료제공·자문 | 성북문화원 마을아카이브팀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로4길 13-8)
펴낸곳 | 한울타리
비매품

ⓒ 성북문화원, 성북구청, 2024

본 책에 등장하는 캐릭터 및 디자인의 저작권은 김정현(작가)에게 있으며, 작가, 성북구청, 성북문화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 사용을 금합니다.

목차

등장인물 소개 · · ·

등장인물 소개



마왕

마왕성의 주인으로 현재 평화협정을 맺고 성북구로 휴가를 온 상태이다.
항상 해맑고 어딘가 덤벙거리는 구석이 있다. 용사에게 가이드를 요청해
성북구를 관광하는 중. 종종 예습을 해오기도 하지만 그때마다 용사가
자신을 가짜라 의심하는 바람에 최근엔 알아도 모르는 척하고 있다.



용사

평화협정으로 인해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되자 실직해버린 용사.
성북구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마왕의 눈에 띄어 관광 가이드를 하게
된다. 무뚝뚝하고 아는 게 많지만 엄청난 대식가. 마왕에게 시급을 더
올려달라 하거나 먹을 걸 사달라고 하는 것이 말버릇.



지젤

마왕의 오른팔로 마왕 팬클럽의 창시자이자 회장이기도 하다.
마왕을 무서울 정도로 잘 따르며 서민의 삶에 관심이 많다.
좋아하는 것만 깊게 파고드는 성격이었으나 모종의 사건으로 인해
다양한 지식을 습득하는 중이라고 한다.



궁수

용사 일행 중 한명이었으나 용사와 마찬가지로 실직한 상태.
현재 여러가지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생계를 이어나가고 있다.
상냥하며 아는 것도 상당히 많아 마왕의 마음에 든 인물.
용사와 가까워지고 싶은 듯하다.

프롤로그

지구와 비슷한 행성,
그 곳에는 마왕성과
몇 백년간 싸워온
한 나라가 있었다

그러던 어느날, 갑자기
평화협정을 제안해 온
마왕성에 의해
기나긴 싸움이 멈췄고

지금, 마왕은 그간
즐기지 못했던 휴가를
떠나려 한다.

자, 마왕님
이제 돌립니다.

저는 맞추시면
안돼요

쳐-

나만 믿거라!

아니 생각보다
잘 던졌다.

휘앙-

뚱

저기 어디야?

뚜

대한민국 서울특별시의
성북구로 휴가지 결정!

좋다! 그럼 당장
그 곳으로 휴가를
떠나겠다!

피잉-

네 마왕님!
휴가 짐은 저희가
옮기겠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성북구 성북동

그러고보니 이 나라에선
이사를 한 날엔

자장면? 이란걸
시켜 먹는다길래
주문해 보았다!

곧 올 텐데..

띠리리 띵똥 띵똥-

딩동-

오오! 왔구나!

내 자장..

1화. 문학작품에서 만나는 성북

성북마을아카이브 [금도끼#3]









..이거까지 말하면
앞에서 얘기했던걸 홀라당
까먹겠지... 너의 지능은..

당황.

무.. 무슨 말이냐!
이 몸은 지능이 높다!

여기 이름이
뭐라고?

성북천!

마전권은?

옷감을
표백하는 권리!

오호..

... 안암동을
지나는 구간..

그 구간을
뭐라고 부른댔지?

훗..

안 감았네!

안감내.
그럼 내일 보도록
하지.

아

문학작품에서 만나는 성북

마왕: 용사여, 안 감았네 라고 한 건 장난이었다. 알고 있겠지?

용사: 진심으로 안 감았네 라고 생각한걸 누가 모를 것 같나. 아까 말한대로 성북천은 옷감을 삶고 표백하는 마전터로 이용되기도 했고, 아이들의 놀이터가 되기도 했다. 주민들의 삶과 맞닿아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문학 작품에 여러 번 등장하기도 했지.

마왕: 박완서의 소설인 『목마른 계절」 하고 마해송의 장편동화 『모래알고금』에서도 나오지? 훗훗.. 그건 읽어봤다!

용사: ... 정말 다 읽어보긴 했을까 싶군.. 문학작품뿐 아니라 1919년 3.1운동 당시에는 500여명의 사람들이 만세 시위를 벌였던 장소이기도 하니까 시간 되면 나중에 또 와봐라.

마왕: 알겠다! 그 때엔 마왕성 부하들과 와야겠구나!



성북천 범바위어린이공원 근처
(출처: 성북마을아카이브)

2화. 일장기말소사건과 이길용 (上)

성북마을아카이브 [금도끼#25]

흠.. 오늘 점심을 좀 대충 먹었더니 출출하구나..

나도 삼각김밥 하나 밖에 못먹었다.

이 근처에 뭔가 배 좀 채울 만한 곳 없나..

아, 가기 전에 잠깐.

와악! 깜짝이야!!! 왜 막는게냐 갑자기?!

산악회

상욱.

지금 우리가 있는 장소가 어딘지 아나?

주..주택가..?

묻질

묻질

모르는게 당연한가 마침 8월이니 시기도 맞겠군.

1936년 8월 베를린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수상한 손기정 선수의 사진에서

일장기를 제거한 이길용 기자의 집터다.

일장기를 제거?

으음

그 당시 한국은 일본에 의해 식민통치를 받고 있었거든.

그래서 한국의 선수들은 일본 소속, 즉 일장기를 달고 참가할 수밖에 없었다.

자신이 사는 나라의 국기를 달지 못한 거구나.

그런 올림픽의
마라톤 종목에서

손기정 선수가
금메달을
수상했지만..

어쩔 수 없이
태극기가 아닌
일장기를 단 채로
시상식에 올라야 했고

시상식 사진에
나와있듯
월계수 나무로
일장기를 가리려
하고 있었지.

금메달을
탔어도 기쁘지
않아 보이는구나.

당시 동아일보 체육부
기자였던 이길용은
성북동 자택에서
이 시상식 사진을
접한 뒤,

사진을 오려
동아일보에 가져가선
사회부 부장이던
현진건에게 말했다.

그렇게 일장기를
깨끗하게 지워서
동아일보에 보도했고,
조선중앙일보도
일장기를 지운 사진을
보도했다.

이길용!
체포다! 종로경찰서로
따라와!

꽈앙-!

하지만 일본에 발각되면서
동아일보는 '무기정간'
처분을 받고 이길용은
체포되고 마는데.....

손기정 선수의 가슴이
잘 보이지 않게
보도하는 편이
좋겠어.

... 배고파서
더 이상 말하기
힘들군....

왜 하필 지금?!
기.. 기다리거라!
먹을 곳! 찾아볼테니!

뭘 좀 얻어먹어야
기운이 날 듯한..

뻔뻔해

3. 일장기말소사건과 이길용 (下)

성북마을아카이브 [금도끼#25]

일단 이 주변에서 좀 유명한 것 같은 곳으로 와봤는데 괜찮느냐?

수연산방이군.

여긴 소설가였던 이태준이 살았던 곳이다. 이길용과 교류하던 인물 중 하나였지.

같은 성북구 주민인 간송과도 교류했었다 하고..

그냥 평범한 찻집이 아니었구나.

일단 주문부터 하지. 오미자차 하나랑 단호박 빙수랑 흑미 인절미랑 복분자 인절미랑..

휙

네놈, 용사가 아니라 돼지로구나. 키오스크를 보기도 전에 주문을 하다니.

아니 그보다 빨리 다음 얘기나 하거라!

아 맞다.

아 맞다?? 네놈 그냥 얻어 먹으려고 온 거지.

... 자, 종로경찰서에 끌려갔는데~

바로 말 돌리는 것이냐.

체포된 이길용은 여러 모진 고문을 당했고,

일본에 의해 강제로 1936년 9월 25일 동아일보사에서 해직당한다.

고문?!? 이게 그정도의 일이었단 말이냐?

기자로 일하기 전
1919년엔
3·1독립선언서와
임시정부의 기밀문서를

철도편으로 운송하는
책임을 맡아
항일활동을
하기도 했거든.

아..
이미 예전부터
항일활동 중
이었구나.

심우장~?

해직당한 후에도
성북동에 거주하면서
심우장을 찾아
한용운과 법담을
나누기도 했다.

독립운동가이자
시인이었던 한용운이
살던 장소다.

메뉴
나왔습니다~

...음.
그리고.. 이 맛있는
수연산방에서 살던
이태준과 교류도..

냠냠-

아까 얘기
했잖느냐.

아 그런가.

...용사.....
먹을 거 앞에선
나보다 지능이
딸리는 모양이군..

...빙수 하나만 더
시키겠다.
불만 없겠지?

그냥 가게를
거덜내거라.

일장기말소사건과 이길용

마왕: 용사여.. 정말 많이 먹더구나. 도대체 그 음식이 다 어디로 들어가는 게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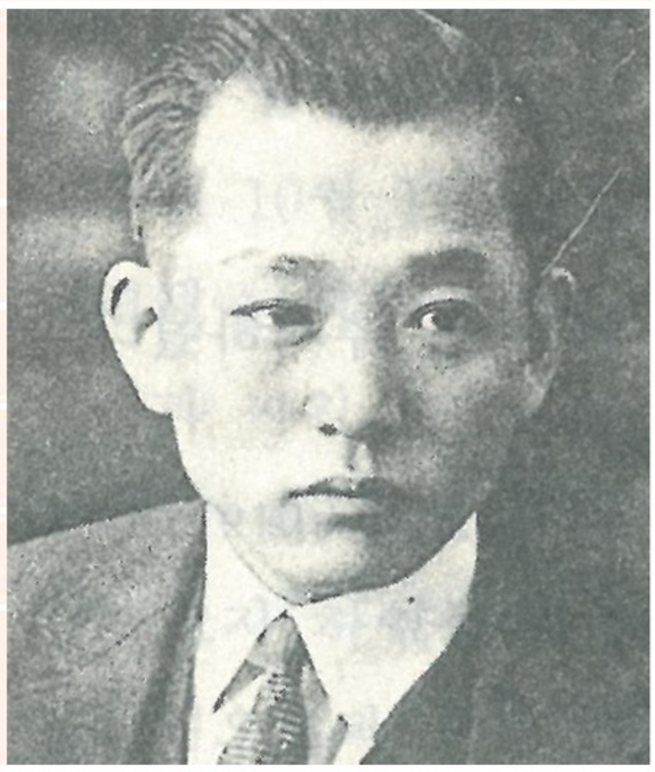
용사: 보통 음식을 먹으면 위장으로 들어간다. 그것도 몰랐나?
뭐 아무튼, 손기정 선수가 참가했던 건 1936년 8월 베를린에서 열린 제11회 올림픽이었다. 당시 손기정 선수의 기록은 2시간 26분 14초였고 마라톤 세계신기록이었다고 하지.

마왕: 아니 밥을 먹으면 당연히 배로 들어가지 그런 당연한 걸 물은 게.. ... 됐다.. 마라톤은 어느 정도 길이더냐?

용사: 42.195km다. 베를린 올림픽의 마라톤은 편도가 아니라 반환점이 있는 왕복 코스였다고 한다.

마왕: 히엑.. 엄청 길구나.. 이길용 기자는 광복 후 어떻게 되었느냐?

용사: 이길용은 1930년대 초부터 전쟁 이후 납북 직전까지 성북동 56번지에 거주하면서 조선체육동지회 결성에 참여하고 조선체육회 재건에 힘을 썼다. 역기연맹과 씨름협회에도 힘을 보탰고 광복 이후 동아일보에 사업부장으로 복직했다고 하지.



이길용
(출처:공훈전자 사료관)

4. 369마을의 조성과 그 이후 (上)

성북마을아카이브 [금도끼#89]











그런 나이에 어울리지 않는 옷은 누가 사다 주는 거지?

이상하느냐? 부하들이 사다준 것인데..

부하들이 네놈 안티인가?

그럴 리 없잖느냐 그리고 오늘 입은 건 내 오른팔인 지젤이 고른 것이다.

아기자기~

그럼 그 녀석이 안티카페 회장이겠군.

꼴깍

아니라니까! 충성!스러운!부하다!

..근데 여긴 뭐하는 곳이냐?

어서오세요~ 어?

369마실이라는 한옥 개조 카페다.

용사의 옛 동료 **궁수**

요..용사님?! 여긴 어쩐 일로..? 설마 절 보러 와주신..?

아 하필 네가 알바하는 곳이었나.

다른데 갈까

그렇겠군. 369마을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지?

어떤 방식으로 마을을 정비했지?

369마을의 특이한 점은?

이 곳의 주민 공동 이용시설은?

맛집은?

앵커시설은 뭐가 있지?

예..,,.? 그건.. 이게...예?

옆엔 누구..? 여친은.. 아니죠..?

아니, 마왕이다.

휴가 왔다길래 내가 관광 가이드 알바 해주는 중.

마왕?

옛?

넷?

그렇다! 넌 궁수인가. 반갑구나. 여기서 알바하는 거면 이 곳 정보도 많이 알겠지?

5. 369마을의 조성과 그 이후 (下)

성북마을아카이브 [금도끼#89]

그.. 그럼 제가 나가서 이것저것 설명 할게요..!

용사님 부탁이기도 하고.. 마침 알바도 끝나가니까요..!

아! 이 몸, 녹차 한 잔만!

예? 아,, 네

기다리는 동안 아까 하다 만 얘기 좀 해보거라!

아 그거. 주민들이 집과 골목을 정비해서 재개발 구역에서 해제됐다 했었지.

휘적-

휘적-

... 내가 왜 마왕의 녹차를 타줘야 하는 거지..

그 뒤에 주거 환경 관리 사업 대상지로 선정 되고 도시 재생 사업이 시작됐다.

저건 뭐지...

주문하신 녹차!! 나왔으니까 좀 떨어지세요!!

꽈앙!

메뉴와 동시에 저도 알바 끝! 이제부턴 제가 설명할 테니

녹차는 조장했어요!

두 분은 좀 떨어져서 걸으시죠

와락!

먼저 369마을엔 또 다른 의미가 들어있어요.

'마을의 정체성과 문화를 바탕으로 주민이 주도하고 화합하는 세가지 가치를 지닌 언덕 마을(三育丘)'!

삼육동 369성결마을 이야기

그런 뜻을 더해 마을 커뮤니티로서의 의미를 더욱 굳혔어요.

올라오면서 보셨을
369사랑방, 제가
알바하는 369마실,

지역 예술가와
청년 활동가를 지원하는
369예술공방 등
여러 앵커시설도
마련되어 있어요.

진짜 잘 아는구나!
용사보다 설명도 친절하군.

앗..!
헤헤 부끄럽네요~
그 정도까지는...

정말이다!
용사가 없었다면
널 고용했을 정도로!

그.. 그럼 저도
용사님이랑 같이
일하는 건
어떨까요..?

봉
봉
봉
짝
짝
짝

아.. 그건 좀
어렵지 않나.. 싶다만..
음.. 그.. 내가 재정이..

에?!
안돼요?!

그리고.. 음..
이 몸은
용사랑 다니는 게
편해서..

... 아쉽지만..
마왕이 그렇다니
어쩔 수 없는 거다.

그리고 지금부터
이 윗쪽에 있는
한양성곽 순성길을
갈 예정인데
같이 갈 거냐?

에..예?
아.. 아 그게..

저는.. 다음
알바가 있는지라...
하.....

그런가?
그럼 조심히
들어가라.
오늘은 고마웠군.

조심히 가거라!
고마웠다!
아 용사, 가기 전에
간식 좀 먹자꾸나!

하ㅠㅠ

난 언제쯤
용사님과 친하게
지낼 수 있을까..?

369마을의 조성과 그 이후

마왕: 궁수는 정말 착하고 아는 것도 많더구나. 용사 네 놈도 좀 본받는 게 어떻겠느냐?

용사: 나한테 배우는 입장인 녀석한테 그런 소릴 듣고 싶진 않군. 자자, 궁수가 말한 거 이외에 궁금한 게 있다면 다 물어봐라.

마왕: ... 무던한 척 하면서 은근히 신경쓰였나 보구나. 369마을에서 열리는 문화행사는 무료인 게냐?

용사: 원데이 클래스 등의 유료 프로그램도 있고 버스킹 관람 같은 무료 프로그램도 있다.
369마을 후원자라면 시설 대관과 콘텐츠 이용료 모두 10% 할인이라고 하더군.

마왕: 후원자..! 기부가 가능했구나. 어쩐지 신기하다~!

용사: 참고로 나도 후원금을 받고 있으니 언제라도 환영..

마왕: 아. 또 이상한 소리를. 슬슬 집에 가자꾸나.



369마을 안내 표지판
(출처: 성북마을아카이브)

6. 1955년, 성북동에 세워진 붉은 벽돌 건물 (上)

성북마을아카이브 [금도끼#86]

...마왕.. 너..
여기 들어가도
괜찮은 거냐...?

음? 수도회가
뭐 어때서 그러느냐?

.. 그.. 여기가..
한국 가톨릭 최초로
내국인 수도자를 위한
수도회거든?

1953년에 창설된
그런.. 종교사적 가치가
높은 곳이라..

악마쪽
존재는 조금
위험하지 않나...

음! 이 몸은
악마가 아니니
괜찮다!

아 그런가

이 수도회를
설계한 사람이기도 하지.
원래 창립 초기엔
제기동 성당에서 창립한
수도회는 3년 뒤
성북동으로 옮겨왔다.

한국 수도사들이 모여 만든
첫 수도회이자 한국인 신부가
직접 설계한 건물이라
국가등록문화재로 지정되었지

그나저나 저 흉상은
누구인 것이냐?

삿대질 멈추고,

저 흉상은 이 수도회
창립자인
무아(無我) 방유룡
(안드레아, 1900~1986)
신부다.

따르르릉

직접 설계했다고?!
어마어마하구나!

척-!

앗, 잠시
전화 좀..

지젤!
지금 나는 몹시
바쁘다! 용건만
말하거라!

.... 뭐?

오.. 오겠다고?! 너 여기가 어딘 줄 알고?!

무려 수도회다! 외벽에 천사? 도 조각되어 있는!

너는 진짜 악마잖느냐!

저벅

저벅

천사가 아니라 교회에서 인정한 공경받는 순교복자 12명이다.

그렇대!

아무튼 신성한 공간이라 너는 오면 큰일난다! 석상 하나하나가 위험하단 말이다!

뭐 지금 겉에 있는건 다 복제픔이고 원본은 수도회에서 소장중이지만.

버럭-!

아니 용사!! 왜 자꾸 그렇게 내 말에 반박하는 것이냐! 이 녀석이 오기라도 하면..!

오라고 해라.

뭣?

고용주 코디를 그따위로 해놓고 수도원까지 오겠다는 악마라니.. 좀 궁금..

*마왕성북 4화 참조

어차피 와봤자 내가 손해 보는 부분은 없다. 불러라.

조각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할 부분도 있고.

지금 그걸... 이유라고..

흐허어..

용사.. 너는 모르겠지..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용사 널 엄청엄청 싫어한단 말이다....!



7. 1955년, 성북동에 세워진 붉은 벽돌 건물 (下)

성북마을아카이브 [금도끼#86]









저건 누구냐?

누구냐가 아니고
누구시냐고 해야지.

알려줄 테니 잘 들어라.
12명이라 좀 많다.

이..이이이이익..!!
러블리챠밍 마왕님을
독점하지 마..!!!

지금 얘기한 인물들은
한국의 순교자들이고
전원 카톨릭 성인이다.

성인은 복자와 비슷하지만
복자는 특정 범위에서만,
성인은 전 세계 어디서나
공경을 드릴 수 있다는
점이 다르지.

... 혹시
방금 말한 이름들
바로 까먹은 건
아니겠지?

유진길 (아우구스티노),
정하상 (바오로),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
범 라오렌시오 앵베르 주교
조신철 (가롤로)

박희순 (루치아), 김효임 (골롬바)
베드로 모방 신부, 현석문 (가롤로)
김효주 (아녜스), 유대철 (베드로)
샤스탕 야고보 신부
... 가 있다.

아니 그걸 도대체
어떻게 외우고
다니는 게냐..?

이.. 이번 건
좀 놀라운데..

하핫! 내 기억력을
뭘로 보는거냐!
마왕님 잘 봐주십쇼!
제 능력을!

뭐?!
저기, 지젤 잠깐

구하하하

베드ㄹ....!!!

꼬륽.....

끄아아아...

* 베드로는 예수의
12사도 중 제1사도이다.

아이고~! 하필 불러도
베드로를 불러버리면
어쩌자는 거냐!

그것도 쿤이 여기서!!

타다닷-

... 바보인가.

1955년, 성북동에 세워진 붉은 벽돌 건물



...지젤은 급히 마왕성에 돌아가서 회복 중에 있다.



그런가.. 좀 지나쳤다. 미안하다고 전해줘라.



알겠다... 그나저나 이 건물의 돔 모양.. 약간 다른 성당들이랑
다른 것 같지 않느냐?



보통의 성당 건물은 제단 상부의 돔이 반원 모양인데
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의 건물 제단 상부는
타원형 반구로 만들었다고 한다.



오호.. 외벽에 있는 조각상도 그렇고 뭔가 상당히
새로운 시도가 보이는 건물이구나.



한국 가톨릭 최초의 남자 수도회의 본원 건물이자,
한국인 신부에 의해 설계되었다는 점부터 새롭긴 하지.



성북동 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구본원 전경
(출처: 성북마을아카이브)

성북마을아카이브 〈마왕성북〉

8. 청산리 전투의 영웅들 (上)

성북마을아카이브 [금도끼#32]











마왕은 .... 그걸 전부 외울 수 있는 지능이 없어..

의심...

마왕은.. 그렇지 않다고..

네 놈 안에 나는 대체 어느 정도의 지능인 게냐?

분노를 넘어서 어이가 없구나.

용사... 어디 아픈 건가? 애써 예습해 왔는데 대체 왜 저러는 것이지?

나.. 나중소가 무과에 급제한 것도 알아..?

16살에 급제했다고 알고있...

.....

모르겠구나 그건.

하아... 이제야 좀 안심이 되는군.

유...

.... 그래 그 청산리전투랑 성북구가 무슨 관련이 있느냐?

청산리전투 참전자들 중엔 성북구랑 연이 있는 인물들이 있었거든.

아~ 그렇군 그렇군 김규식이나 김동삼..

의외인데?

친구 이름이다!!! 친구 이름!!!! 난 아는게 없다!

하... 어떻게 아는거냐.. 가..짜..녀..석...

그렇군.. 그럼 됐다.. 자자, 내가 알기 쉽게 설명해 주지.

...

그래.

용사..... 진짜 이상한 녀석..

하아...

9. 청산리 전투의 영웅들 (下)

성북마을아카이브 [금도끼#32]

나중소는
정릉동 603-3 출신의
독립운동가인데

저벅-

저벅-

대한정의단의
교관이기도 했고
청산리 전투에
참여하기도 했었지.

모르는 척..
모르는 척..

그리고 나비장군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었다고
한다.

나비..

.. 뭐야.
네 놈. 역시 마왕의
탈을 쓴 가짜구나.

의심..

의심...

아, 근데
청산리 전투 땐
나이가 들어서 머리가
하얘지니까
백발 장교라고도..

불렸으면 어떨까~
하는 나만의
상상~

아.. 아무튼!
김규식과
김동삼은?
어떤 인물인게냐?

흐음..

빤히-

흐음.. 같은 의미심장한
추임새 내지 말고
빨리..!!

노은 김규식은
돈암동의
독립운동가다.

청산리 전투에서는
제2연대 제1대대장으로
참가한 인물이지.



그렇군..
대대장..
그건 몰랐었다..

참고로 구리시 출신이라
구리시의 지역카드로도
발행된 바 있다.

그걸 왜 서울시민인
네놈이
갖고 다니는 게냐.



억-

그냥.

그리고 김동삼도
청산리 전투에 참여하여
일본군과 맞서
싸운 인물이다.
본명은 김긍식.

1931년 하얼빈에서
체포당해 경성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루다 1937년에
순국했지.



심우장에
있는 그 표지석의
인물이지?

그렇다.
김동삼의 시신을
수습할 사람이 없던
당시, 한용운이
그의 장례를
심우장에서 치러주었지.

아~! 뭔가
익숙하다 했더니
뮤지컬 〈심우〉
내용이 이거였구나.

아하~

그건 또 언제
본 거지.
6월 아녔나.

휴가 오기 전
부동산 계약하러
왔을 때 봤다.
후훗.

그런가....
그.. 혹시 이제..
내가 필요 없으니
잘리는 건..

그거 때문에
그 난리였던 게냐..
안 자른다!
정말이지!

휴...

아.. 다행.
내 밥줄..

청산리전투의 영웅들

용사: 진짜 마왕을 데려와라. 너는 아무리 봐도 가짜다.

마왕: 어이가 없구나. 예습 좀 해오면 어때서..
내가 가짜라는 증거가 있느냐?

용사: ... 김동삼은 어디서 체포됐는지 아나?

마왕: 김동삼은 1910년에 만주로 망명해 독립운동기지 건설을 돕고
이회영, 이시영, 이동녕 등과 함께 서간도에 경학사와 신흥강습소를
세웠던 사람이지? 서로군정서 참모장을 맡아 독립군을 지휘하고
청산리 전투도 참가했었고, 1931년 하얼빈에서 체포됐다 들었다만.

용사: 그래, 그 후 경성 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르다 1937년에
목숨을 잃고 성북동 심우장에서 장례를 치렀지..
...이걸 전부 안다니. 역시 가짜다. 싸우자.

마왕: 아니 저기 용사여, 제발 진정 좀 하거라.



김규식
(출처: 공훈전자사료관)

10. 1968년 북악스카이웨이 조성과 그 이후 (上)

성북마을아카이브 [금도끼#82]

초록이 가득하구나!
기분이 좋아진다!

비로~

뭐냐.. 그 뭔가
엄청난 옷.. 엄청난 머리..

지젤이 회복했다.

그러는 네 놈도
오늘따라 좀
뭔가 많이 다르구나.

알바가
있었어서.

아르바이트
말 하는 것이냐?

이 몸은 알바에
로망이 있다..!
이렇게 평화로운
공간에서 잡일을
도맡는 것..!

샤아아아아

얼마나 곱게 자란거냐.
그리고 여기가
마냥 평화롭다고
할 수는 없다.

뭣..?!
이렇게 조용하고
좋은데..?

1.21 사태가
일어난 뒤에
만든거다.

미아리고개-자하문 사이에
길을 내서 무장간첩의
침투를 막고 관광시설을
마련하기 위해서지.

1.21 사태..?

124부대
침투!

휴전선

이번엔 예습을
안해왔군.

1.21사태는 북한 공작원
31명이 청와대를 습격하여
박정희 대통령을 암살하려고
서울 자하문 고개까지
침투한 사건이다.

김신조 루트라고도
불리는 침투 경로다.

저렇게 이동하다가
청와대를 300m 남기고
검문을 받게 되는데..



잡혔느냐?!
잡혔겠지?

놀라서 그만..
그 일 때문에
이 도로가
생긴거란 말이냐?

그래.
주민등록번호, 예비군,
교련 교육, 5분 대기조도
전부 이 일 때문에 생겼다.

엄청나구나..

아. 총격전이
벌어져서 124부대
31명 중 29명 사망,
대한민국 군경 23명이
전사하고 민간인 7명이
사망했다.

헉-

아니 총격전?! 사망?!
민간인도?!

뿔이랑 날개
엄청 오랜만에 보는군.

아니 그보다 왜
침투 루트를
김신조 루트라고
부르느냐?

그건.. 하암..
졸리고 배고파서
와플을 먹어야 설명
가능할 듯한..

아오 진짜

11. 1968년 북악스카이웨이 조성과 그 이후 (下)

성북마을아카이브 [금도끼#82]

주변에 카페나 음식점이 별로 없어서 이번엔 사주기 어렵다..!

나중에 사줄테니 빨리 김신조 루트가 왜 김신조 루트인지 좀..

음... 장소를 잘못 골랐군.. 내려가서 말할걸..

아.. 뭐.. 그 이유는..

그 때 살아남아서 한국에 귀순한 유일한 사람이 김신조라..

머쓱~

지금 그 한 줄로 와플을 뜯어내려 한 것이냐.

와플은 일단 넘어가고.. 여기 원래는 유료도로였던 거 알고있나?

말은 잘 돌리는구나. 근데 왜 지금은 무료인게냐?

음. 군사정권 시절 통제됐었던 북악산 일대가 2007년에 일부 개방되면서 지금의 '북악하늘길'이 조성되었다.

아, 그러고보니 아까 말한 김신조 루트도

북악하늘길 제2산책로로 개발됐다.

요금징수 실적이 별로였다고 한다. 그래서1976년에 무료로 바뀌었지.

그 당시엔 경비 강화를 위한 군사 목적이 강했어서 지금이랑은 좀 달랐던 듯 하다.

그럼 이 산책로도 당시엔 없었느냐?

앗! 정말이냐! 뭔가 신기하구나..

2산책로 (일명 '김신조' 루트)

은근 뭐가
많았던 것 같은데..
스카이웨이
수영장도 있었고..

수영장....?!

파앗-

으아아아앙!
폐장이라니!
수영장이 가고 싶었단
말이다!!!

끄아아앙-

애냐.

수영장..!
가고 싶구나..!
어디 있느냐..?

그게..
폐.. 폐장했다..

수영장~!
물놀이~!

에휴. 그래.
다음 주는 같이
수영장에 가도록 하지.

정말이냐?
야호~!

짝

... 난 이미 오늘
수영장에 알바하러
다녀왔지만..

1968년 북악스카이웨이의 조성과 그 이후



오랜만에 이렇게 나무가 울창한 곳을 걸으니
폐가 맑아지는 기분이로구나.
북악스카이웨이 조성에는 얼마가 들었느냐?



당시 금액으로 3억 4백만 원의 공사비를 들여 도로를 개통했다더군.
오, 여기 총알 자국.



총?! 총알 자국이라니?! 그 쏘는 총 말하는 게냐?!



김신조 루트라고 불리는 제2산책로 중간에는 68년 당시
무장공비와 국군의 총격전으로 수십개의 총알 자국이 선명한 호경암 등
역사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는 부분이 있거든.



히에에엑~ 갑자기 무서워졌다.. 용사여.. 빨리 내려가서 와플 먹자꾸나..



북악스카이웨이 도로
(출처: 성북문화원)

12. 한국 라면의 고향, 성북구 하월곡동 (上)

성북마을아카이브 [금도끼#173]

마왕.. 네 놈이 수영장이 오고 싶다길래 기껏 왔건만..

아.. 용사여.. 화났느냐...?

하... 그 돈을 날 줬더라면.....

하아...

화난건 아닌데.. 수영도 못하는 놈이 수영장을 통째로 빌렸다고...?

머쓱

아하하.. 튜브가 쓰고 싶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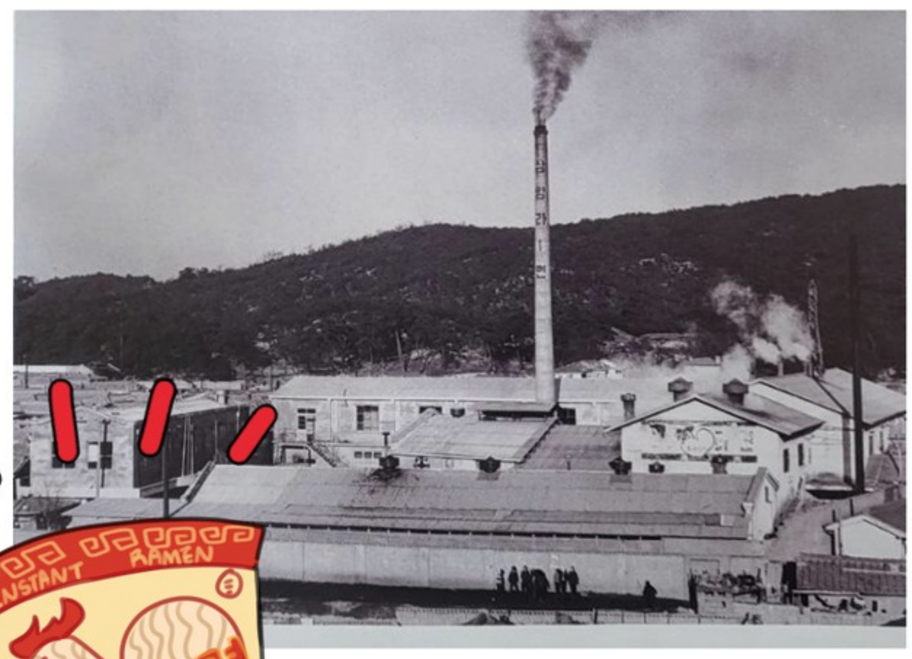
이 날씨에 야외 수영장도 좀 그렇잖느냐.

그 돈을 왜 네 놈이 받느냐.

뭐, 나중에 라면 정도는 주도록 하지. 몇 개 사다 놨거든.

서울 성북구의 하월곡동이다.

엇? 성북구에서?!



(출처:삼양식품삼십년사)

라면이라.. 한국 최초의 인스턴트 라면이 어디서 출시됐는지 아나?

뭣.. 최초의 인슽..

끄아아아아아악!

준비운동. 준비운동.

쿠이욱

쿠이욱

허리가! 허리가!

하월곡동 82-9 에서 1963년 9월 15일날 최초의 인스턴트 라면인 '삼양라면'이 출시됐지.

제일 처음 나온
인스턴트 라면은
1958년 일본
닛신 식품의 회장
안도 모모후쿠가
개발한 건데..

까아아아아아악
히야아아아악
그만!!!!!!

정말 시끄럽군.

으아아..
그럼 그 닛신 식품한테
기술을 받아온 것이냐?

아니. 당시
라면업계 2위였던
묘조식품에게서
기계랑 기술을
지원받았다.

마왕, 네 놈은
매운 라면이 좋은가
안 매운 라면이 좋은가?

그야 당연히
매운 라면이지.
이 몸은 흰 국물보단
빨간 국물이 좋다.

음. 초기의 라면은
전혀 맵지
않았다고 한다.

우왓..
근데 어쩌다
지금 같은 맛이
나온 게냐?

처음엔 일본식 라면을
재현해서 느끼한 맛이
났다고 하는데,

청와대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라면을 시식하고 나서
매운 맛을 가미하면
좋겠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그 후로
라면은 매운 맛이
나는게 일반적이게
됐지.

나머지는 물 속에서
듣도록 해라.

으아아아아악!!!!
난 수영 못한다고!!!!

13. 한국 라면의 고향, 성북구 하월곡동 (下)

성북마을아카이브 [금도끼#173]

왜 그런 표정이냐.
어차피 물에 빠져도
안 죽으면서.

보글보글

... 튜브..
끼고 싶다
말했거늘..

대통령이 맛을
평가해 줄 정도의 관심과
혼분식 장려 정책 덕에
라면 가격도 내려갔고..

물에 사람을
던져놓고 편히
눕다니 팔자가
좋구나.

네놈은 사람 아니잖아.
아무튼 라면 판매량이
엄청 늘었다고 한다.

그나저나
혼분식 장려?
그게 무엇이냐?

베이비붐으로 인해
쌀 자급률이 부족해져서
쌀 소비를 줄이려
잡곡이나 밀가루를
쌀의 대안으로 사용하자는
정부 주도 운동인데,

학교 도시락에
일정 비율 이상의
잡곡을 섞게 하거나
쌀음식을 제한하기도
했다.



라면이 잘
팔릴 수밖에
없었겠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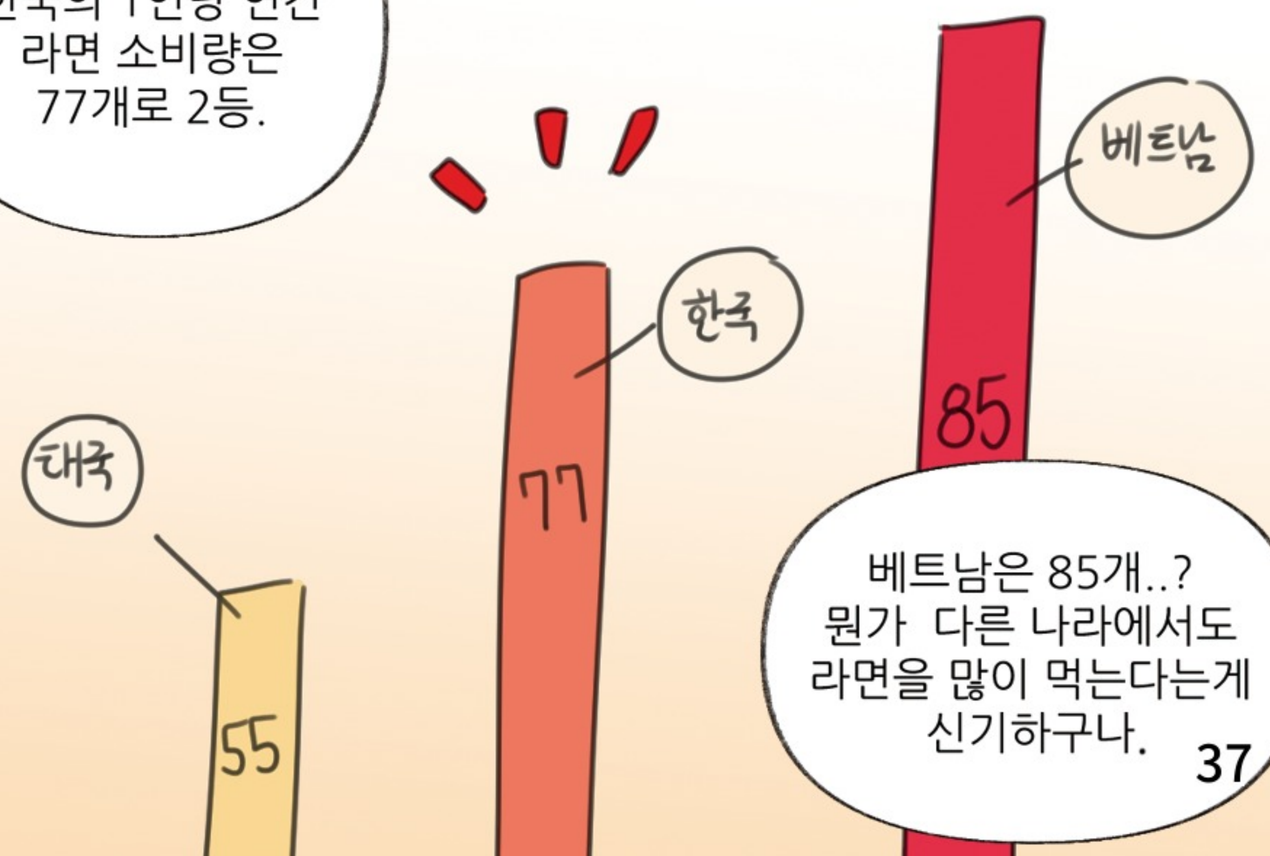
그렇지. 그 덕에
여러 라면 업체가
생겨나서 경쟁체제도
생겼다.

철퍽

신*면이나
비*면 같은?

그렇다.

참고로 2022년
한국의 1인당 연간
라면 소비량은
77개로 2등.



베트남은 85개..?
뭔가 다른 나라에서도
라면을 많이 먹는다는게
신기하구나.

.. 라면 얘기 하니까
배가 고프군.

... 수영도
안 했으면서.

그거야 네 놈이
수영을 못하니까..

됐다, 못하는 걸
하루 만에
가르칠 순 없지.
튜브 가져오겠다.

빨간색이 좋다~

파랑.

..빨강.

용사여. 매일같이
파란 것만 찾지 말고
혼분식 정책처럼
빨강에도 관심을
보이거라.

사라진지가 언젠데.
아무튼 가져오는 사람
마음이다.

말이 안 통하는구나.

풍덩-

으아아악!
물에 그만 좀
밀어 넣거라!!

네 놈이
말을 안 듣잖아.

이 몸이 친히
용사, 너도
물에 넣어주겠다.
이리 오거라.

아, 싫은

풍덩

한국 라면의 고향, 성북구 하월곡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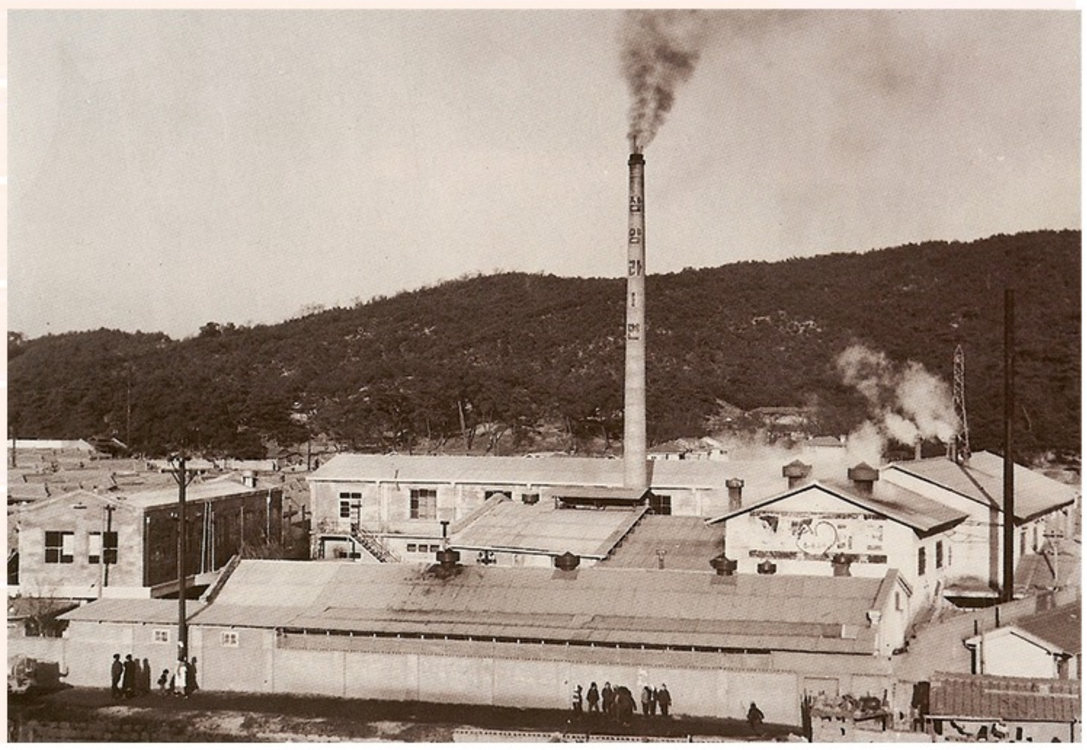
마왕: 음.. 역시 물에 빠진 뒤에 먹는 라면이 맛있는 법이지.
이 국물 한 모금이 나오기까지 어떤 역사가 있었는지
알고 먹으니 더 맛있구나.

용사: 삼양라면은 대통령에게 선보이기 이전에도 종로 거리에서
1년 넘게 공개 시식회를 했다고 한다.

마왕: 1년 넘게? 엄청난 열정이었구나..

용사: 회사 내에 수프 개발을 위한 실험실도 설치했었다니까
라면 개발에 얼마나 진심이었는지 알 수 있지. 이거 한 개 더 없나?

마왕: 용사여. 그거 8인분 점보 컵라면인데 하나를 더 먹겠다니. 배 터질 게다.



옛 월곡동 공장 전경
(출처: 삼양식품삼십년사)

14. 돈암시장의 변천사 (上)

성북마을아카이브 [금도끼#149]



너무 춥구나~!

빨리 장 보고 따뜻한 곳으로 들어가지.

... 지금 보니 그냥 네 놈이 춥게 입었구만.

... 이렇게 추울 줄은 몰랐다!

그러고보니 이 돈암시장은 언제 생긴 것이냐?

공식적으로는 1952년이라는데..

그보다 더 이전일 수도 있다고 하네요.

토지구획정리가 완료된 1939년 이후에 한옥 상가가 생긴 걸 시작으로 시장이 형성되었대요.

치글

그치만 무허가 점포가 들어서면서 혼잡해지자 1959년엔 돈암시장을 '돈암노점시장' 이라며 사회문제로 언급했다고 해요.

지글

주변 인구가 빠르게 늘어서 원래 있던 상설시장 주변에도 마구잡이로 생긴 건가 보구나.

궁수? 여기서 뭐 하느냐?

헤헤 알바 중이랍니다~

싹

음. 오랜만이군.

우와... 엄청 맛있겠구나.. 얘기라도 하자꾸나!

안~

치글

지글

오옷
엄청 맛있구나

요식업에
재능이 있는
건가..

아닛.. 저 큐티큐티
뒷모습은...?

냠냠
냠

와앙~
마왕님
여기서 뭐 하세요?

지젤?
지금 무허가
점포 얘기를
듣고있던 참이다.

앗 맞아요
그 뒤에 시장
안팎으로
건물이 생겼었죠.

안시장, 바깥시장?

뭔데 다
알고 계세요?

아, 그냥 좀..

아, 그 점포를
지정해 줬지만
돈이 없어서 입주가
어려웠던 거요?

... 마왕,
저 녀석 원래
저렇게
똑똑했었나?

당연하지.
내 오른팔이라고
했잖느냐.

분명 되게
얼빵했었는데..

관심 없는 건
아예 몰라서
그렇다..

워낭~
쇼
쇼
워럭~

그 뒤인 1990년대에
재개발 되고 2003년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상복합아파트 공사도
했었지~

겪어본 것처럼
말하고 있다..?!
일단 유익하니 계속
들어봐야지

15. 돈암시장의 변천사 (下)

성북마을아카이브 [금도끼#149]

저 녀석들..
자기들이 겪어본
것처럼 말하고 있구나..

과몰입... 인가..
유익하지만
조금 무섭군..

원래도 시장 같은 걸
저렇게 좋아하는
녀석인가?

음? 아, 뭐.
서민 느낌 난다고
좋아하긴 했었지.

귀족 녀석들이란..

부웅~

그러고 보니
분명
마왕성에서..

마왕님! 그 동네에
막 선녀가 그려진
벽화가 있는 시장이
있다던데요! 가죠!

일단 킵.

... 라고 했었지.

그게 돈암시장 아니냐.

뭣! 진짜
선녀 벽화가
있구나!

돈암시장
DONAM MARKET

옥녀봉에서
세 신선이 내려와
선녀하고 놀았단
설화를

마스코트로
만들었다고 한다.

근데 뜬금없이
왜 선녀 설화인
것이냐?

원래 삼선동의 지명이
거기서 유래했대요.
그런 고유한 지역 문화를
사용해서

삼선동 근처
전통시장과
연계한 거죠.

듣고 있었나.

그래서 삼선동에선
선녀축제도 열리는데
행진 때 돈암시장도
거쳐간다고 해요.

선녀축제??
신기하구나..

그쵸..! 저도 타이밍만
맞으면 꼭 보고 싶어요.

치이이익-

근데 2014년
이전의
돈암시장은

돈암제일시장이라고
불러야 맞겠죠?
좀 길잖아요 이름.

아무래도..
문화관광형시장으로
선정되기 전엔

이름이
그거였으니까

끔찍..

뱌옷

....?

생각해 보니
울타리에도 선녀가
있었지..

후후.. 귀엽군..
마왕성도
마스코트가
있었다면..

휴우후...

네! 마왕님!

...지젤! 마왕성
긴급회의다!
저녁 8시에
전원 집합하도록!

무슨 일을
벌이려는거냐.....

돈암시장의 변천사

마왕: 궁수가 만들어준 어묵 정말정말 맛있었다~!

용사: 네 녀석 부하는 대체 왜 그렇게나 아는 게 많아서는
내 일자리를 위협하는거냐.

마왕: 전혀 위협 안되니까 걱정 말거라. 그나저나 안시장과 바깥시장이라는 게
돈암지구 인구가 늘어나고 상권이 커지면서 생긴 게냐?

용사: 그렇지. 처음엔 이 한 블록만 시장이었는데..

지젤: 시장 안팎으로 새로운 건물이 생기면서 안과 밖이 구분되어
불린거라고 하더라구요. 그 뒤에 1990년이 되면서 이 구역이 재개발되고
2003년엔 주상복합아파트 공사를 했거든요.
그 때 기존 돈암시장의 안시장이 사라지고 그 대신 지금의 돈암시장 상가가
옮겨진 거래요.

용사: 당장 내 설명에서 나가. 이 일자리 도둑.



돈암시장 입구
(출처: 성북마을아카이브)

16. 예술을 보는 눈, 최순우

성북마을아카이브 [금도끼#41]

네? 마스코트요? 갑자기요?

그래! 필요성을 느꼈느니라.

음..! 마왕님이라면 뭔가 생각이 있으신 거겠죠!

아무튼, 의견 있는 부하는 자유롭게 말하도록!

서억

이런건 좀 심미안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 이럴 줄 알았으면 최순우 옛집이라도 다 같이 갈 걸 그랬네요.

아 그러네. 거기를 아직 안 가봤구나. 어디있더라?

그, 저번에 다 같이 간 카페 옆이요. 성북동 126-20.

마왕만 쏙 빼놓고 잘 놀러 다녔구나.

그나저나 거기는 뭘 하는 곳이냐?

미술사학자였던 최순우가 거주했던 한옥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장을 맡기도 했었는데 6.25 전쟁 때는 박물관의 문화재를 부산으로 안전히 운반하기도 했대요.

그럼 확실히 미술품을 보는 눈이 뛰어났겠구나.

네, 『무량수전 배흘림기둥에 기대서서』, 『나는 내 것이 아름답다』 등의 책도 쓰면서

한국의 미를 대중에게 알리는 데도 힘을 쏟았다고 해요.

마왕최곡

그럼 그 최순우 옛집은 나라에서 지정한 문화재인 것이냐?

처음엔 시민의 힘으로 보존한 시민문화유산 이었다가 2006년에 국가등록문화재로 지정 됐다고 해요.

이렇게 시민의 자발적 기부 등으로 자연과 문화유산을 보전하는 시민운동을 내셔널트러스트 라고 해요.

아 혹시..! 시민문화유산 1호 라고 쓰인 그 한옥?

엥? 다녀오셨어요? 언제? 누구랑? 용사놈? 갑자기 화가 치밀어 오르는데요.

아, 역시 지젤님. 최순우 옛집은 매년 겨울 휴관이 있다네요.

뭣?! 그., 그럼 내 미술적 영감은 어디서 얻어야..

그냥 적당히 외주 맡기시죠.

의욕이 없구나 네 놈

그래.. 그럼.. 이번 안건은 없던 걸로..

제발 진정 좀 하거라 혼자 산책 겸 나갔다가 우연히 갔으니..

휴~

헤헤~ 그러면 저희~ 4월에 같이 갈까용?

헤헤

내일 가는게 좋지 않느냐? 마스코트를 떠올릴 영감을 어서 얻고 싶은데.

?

마왕님과의 마스코트 제작을 위한 미술관 탐방 회의

펑

벌떡

죄송합니다. 회의 다시 시작하죠.

하아...

기나긴 회의 끝에 마스코트는 결국 외주 맡기기로 결정났다.

예술을 보는 눈, 최순우

마왕: .. 그런 일이 있었느니라.

용사: 그 날 급하게 회의하러 가자고 한 게 그런 안건이었나.
아무튼 최순우 옛집은 설명 듣기 전에 가본 게 끝이라고?

마왕: 아무래도 그렇지.

용사: 그럼 다음에 가기 전에 몇 가지만 더 알고 가는 게 좋겠군. 최순우 옛집의 사랑방에는 그의 친필이 담긴 '두문즉시심산(杜門卽是深山)' 이라는 현판이 걸려있다. 문을 닫으면 깊은 산 속과도 같다는 뜻이지.
글귀처럼 최순우 옛집은 사랑채 좌우로 정원을 감상할 수 있는 구조를 갖고있다.

마왕: 1930년대 초에 지어진 근대한옥인 건 들었다만 그것까진 몰랐구나!
ㅁ자 평면 구조에 그런 장점이..

용사: 그런가..... 이렇게 또 나의 중요함을 깨달았겠군.



최순우 옛집
(출처: 성북마을아카이브)

17. 연말. 마왕성 복귀

마왕님,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음. 그래.
출발해 볼까.

아참, 용사에게
서신은 보내 놨겠지?

정말 보내기 싫었지만
일단은 우편함에 잘
넣어두고 왔습니다.

그래, 잘 했다.
하필 어제 핸드폰이
망가져버렸지 뭐냐.

편지를 본 용사가
놀라서 주저앉는
모습이 보고 팠건만..
아쉽구나..

606

...?

아뇨. 제 예상인데
놀라긴 커녕
스팸 메일
취급할 걸요.

이건 진짜
뭐냐.

용사여..
이 몸은.. 이제
떠난다..?

..?

다 예상하고
썼으니 괜찮다!

역시 마왕님.
하긴 그 녀석이
찾아 올 리가 없..

용사여. 이 몸은 이제 떠난다.
마왕성으로 돌아가보겠느니라.
다시 만나는 그 날 까지
바이비...

PS. 폰 망가졌느니라.

바스라짐

이럴수가
진짜로 왔다.
그것도 지붕을
뚫고.

마왕.. 갑자기 왜
마왕성으로
돌아가는 건데..?

아니 지금 천장을
부수고 들어와 놓고
자연스럽게 질문을

도대체 왜냐?
내가 밥을 너무
많이 먹어서인가?
아님 항상
얻어먹어서?

으아악 왜 이러느냐!
소름돋는다!!
반려 드래곤을
보러 가는 것
뿐이다!!

반려..
뭐..?

드래곤...?

그래! 마침
곧 새해가 밝기도
하니까 마왕성의
모두와 해돋이도
보고!

... 그런가..
여기서 새해를
맞이하는게 아녔군.

마왕성의 모두가
기다린다!
잠시 다녀와야지!

.....

그.. 그나저나
왜 이리 급히
온 것이냐?

아 그건.....
그.....
.....

마왕님께
손 대지
마라..

그건.....?

... 미리 새해 인사 하려고.
새해 복 많이 받고
왠지 괘씸하니까
한 달 뒤에나 돌아와라.

어?! 어째섯..?!
한 달 뒤..?
용사여..? 화났느냐..?
용사여...??

제작 후기

안녕하세요 「마왕성북」과 「감차미와 진차미」 를 그린 김정현입니다.
많은 분들의 도움 덕분에 두 작품이 책으로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도움을 주신 모든분과 만화를 봐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성북구는 지붕 없는 박물관이라고도 불리는데 최근 들어 더욱 그 말이 와닿습니다. 어렴풋이만 알고 있던 얕은 지식이 만화를 그리면서 더욱 선명해지고, 보이지 않던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성북구의 풍경이 더욱 다양하게 보이는 듯합니다.
이번에 출판된 두 작품을 통해 더 많은 분들의 풍경도 다양해졌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마왕성북」과 「감차미와 진차미」를 보고 성북구의 다양한 이야기들과 다채로운 매력을 느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아래는 실제로 들어왔던 질문 중 몇 가지를 뽑아 만든 Q&A입니다.

Q. 「마왕성북」에서 제일 애정하는 캐릭터는?
A. 「마왕성북」에서 제일 애정하는 캐릭터는 지젤입니다.



Q. 감차미와 진차미의 몸은 뭐로 이루어져 있나요?
A. 감차미는 달콤한 단감즙으로, 진차미는 진달래 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Q. 마왕이랑 용사랑 싸우면 누가 이기나요?
A. 간발의 차로 용사가 이깁니다.

Q. 감차미와 진차미의 성별은?
A. 둘 다 수컷입니다.



성북구의 역사문화자원 이야기 「마왕성북」

평화협정으로 인해 성북구로 휴가를 온 마왕과
직장을 잃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용사가 만났다!
어쩌다보니 성북구의 여러 정보를 알려주는 가이드가 된 용사.
그리고 용사와 함께 성북구에서 유유자적한 관광생활을 즐기는 마왕.
두 사람은 과연 잘 지낼 수 있을까요?

마왕과 용사의 이야기가 더 궁금하시다면
성북문화원 인스타그램과 성북마을아카이브를 방문해주세요
(인스타그램: @seongbuk_cultural_center)
(성북마을아카이브: https://archive.sb.go.kr)

성북마을아카이브

비매품/무료
07910
9 791198 599018
ISBN 979-11-985990-1-8

용사..?
왜 네가 배달을?

뭐야
마왕놈이었나?

알바다. 네놈의
평화협정 때문에
백수가 됐거든.

빈털터리
실직자로구나

산악회

왜 기어오르는 것이지

띵-

..뭐, 백수가 됐다고 네놈을
없애고 싶은 맘이 있는건 아니다.
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건 다행이로구나.
용사는 여기서 오래
살았느냐?

일단 너보단 오래.

덜커덩-

그럼 이 몸의
휴가지 관광 가이드가
되어보는건 어떻느냐!

시급 3만원!

싫다.

그럼 5만원!

싫다.

ㅅ...

산악회

벌떡-

.....흠.....

내일부터 하자.

마왕성북

용사! 앞으로 잘 부탁한다~!!!